중생 아픔 함께 한 불자들

5.18 민주화운동과 불교
항쟁에 참여한 사부대중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980년 5월 광주는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다.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화를 요구한 시민들의 봉기를 계엄군이 무자비하게 탄압했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 부처님오신날이었던 5월 21일은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많은 시민들이 스러져가 아픔을 더 했다. 이 같은 신군부의 폭압과 폭력의 현장에서 지역 스님과 불자들은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항쟁에 적극 가담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불자 중 가장 대표적인물은 故 지광 김동수 열사(당시 22세)이다. 그는 1980년 당시 조선대 공과대학 3학년 학생으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전남지부장이었다.

실제로 김동수 열사는 신심 높은 불자였다. 향림사와 관음사 고등부 불교학생회 출신으로 항쟁 직전 광주지역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진행부위원장으로서 도청 앞 광장 점등식을 진행했다. 5월 17일에는 봉축행사 일환으로 광주시민회관서 열린 법정 스님 · 이항녕 박사 강연회도 관여했다.

하지만 모교인 조선대를 계엄군이 강제 점령하고 학생들을 예비 검속하자 5월 19일 목포로 피신했다. 하지만 부처님오신날인 5월 21일 광주에서 내려온 차량 시위대로부터 계엄군 학살 만행 소식을 듣고 그 길로 광주로 돌아와 시민들과 함께 했다. 평소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나누는 것이 보살의 삶"이라고 강조해 온 그에게 시민들을 향한 계엄군의 폭압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김동수 열사는 전남도청항쟁본부에 들어가 희생자들의 시신을 안치하는 일을 도맡아서 했다. 이에 대해 김동수 열사의 동생인 김동채 씨는 "평소에 신심있는 불자였던 만큼 시신에 대한 염과 염불을 하면서 정성껏 모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구술하기도 했다.

시민과 함께하던 김동수 열사는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이 도청을 포위한 5월 27일 새벽 4시 30분경 계엄군에 의해 목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그의 주머니에는 단주 하나와 대불련 뱃지만이 남아있었다.

항쟁에는 승속이 따로 없었다. 심지어 계엄군의 총탄에 반신불수가 돼 속인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스님도 있다. 바로 진각 스님(현재 이광영, 당시 27세)이다. 진각 스님은 화엄사 스님으로 1980년 당시에는 나주 다보사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스님은 도반인 성연 스님이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광주 증심사에 왔다가 항쟁에 참여하게 됐다.

5월 19일 성연 스님과 함께 봉축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시장을 보러 나온 진각 스님은 계엄군의 잔혹한 시위 진압을 목격하게 되고 수행자로서 외면할 수 없어 금남로에서 시위에 앞장섰다. 그러다가 계엄군에게 잡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으나 경찰과 공무원들의 도움으로 탈출해 나주 다보사로 몸을 피했다.

진각 스님은 5월 20일 성연 스님과 연락해 다시 시위에 참여하기로 하고 걸어서 광주로 올라왔다. 5월 21일은 부처님오신날이었지만, 스님은 시위대에 합류해 차량과 현수막에 구호를 쓰는 일을 주도했다. 스님이 쓴 구호들은 시위대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며 항쟁에 목표를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故 김동수 열사


진각 스님(現 이광영)

김동수 열사 도청서 시민군 참여하다 '산화'

진각 스님 구호활동 중 총상… 하반신 마비

이후 헬리콥터 기총사격으로 쓰러진 여학생을 적십자병원에 후송한 것이 계기가 돼 적십자 대원으로 합류하게 된다. 스님은 다른 대원들과 함께 약국과 개인병원에 약품을 조달하고 시내 병원에 시민들이 헌혈한 혈액을 보급했으며, 부상자들을 후송했다.

그러던 중 계엄군의 총격으로 부상당한 시민을 구하려다 척추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계엄군은 적십자 깃발을 꽂은 차량에게까지 무자비하게 총격을 가했으며, 스님과 다른 대원은 총상을 입었고 다른 대원 2명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이 마비가 된 진각 스님은 이후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조계종 포교원장 등을 역임하며 종단 발전에 기여했다.



광주 시내에서 대치하고 있는 시민들과 계엄군 모습. 사진제공=5.18기념재단

조계종 중심 대응… 선무단 파견 · 광주 방문

5.18 당시 종단은 무엇 했나

월주 스님, 현장 조사 지시
의연금 모금… 광주에 전달
6월 3일에는 추모법회 봉행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지역 스님과 재가불자의 활동은 두드러진다. 하지만 전체 불교계의 활동 상황은 기독교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불교계도 1980년 5월의 광주와 함께하려고 했던 노력들은 확인된다. 현재 확인된 당시 불교계 문서는 198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배포된 유인물이다. 해당 유인물은 5월 16일 광주공원 내 시민회관서 열린 '불교사상대강연회'에서 배포된 것으로 배포단체는 한국민중불교연합회로 명시돼 있지만, 정확한 배포 주최는 '모임 아들'의 불자회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인물에는△민주화 운동 적극 참여 독려 △불교 정치적 이용 반대 △호국불교 허상을 깰 것 △표현 및 언론의 자유 △비상계엄 상황 즉각 해제 등의 요구가 담겼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종단 차원의 대응은 한국불교 장자 종단인 조계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는 1980년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월주 스님의 회고록 〈토끼풀 거북털〉과 故정의행 법사가 발표한 '5.18민중항쟁과 불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월주 스님에 따르면 총무원장 취임 20여 일만에 광주 항쟁이 일어났고, 계엄의 재갈이 물린 언론은 불순세력의 폭동으로 몰아갔다. 하지만 월주 스님은 광주로 가기로 결심하고 5월 24일 선발대 격으로 '소요사태 진상조사 선무단'을 보냈다.

성금과 선발대 파견은 신군부의 철권통치가 이뤄지고 있는 시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실제 정보를 파악한 종로경찰서장은 월주 스님을 찾아와 광주에 가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월주 스님은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시민과 군인 희생자 모두를 위로하기 위해 가겠다"며 광주 방문을 강행했다.

월주 스님은 5월 30일 광주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민돕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상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고 광주시민을 돕는데 앞장서자"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또한, 전국 본말사와 신행단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의연금 모금을 진행하기도 했다.

조계종의 광주 방문은 6월 3일 이뤄졌다. 월주 스님을 비롯한 6명의 방문 대표단은 서울에서 전남 장성으로 기차로 내려간 뒤 다시 차량으로 광주에 갔다. 종교계 중앙 교단 책임자로서는 첫 방문이었다.

불교계는 이날 오전 11시 관음사에서 '광주 사태 희생자 영가'라는 위패를 모시고 천도재 입재를 봉행했으며, 이후 정시채 전남도 부지사를 찾아가 "사태 수습과 위로금으로 사용하라"며 금일봉을 전달했다. 부상자들이 있는 전남대병원과 군 병원을 찾아 부상자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후 월주 스님은 희생자들을 위한 49재에도 참석할 계획을 세웠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 5개월이 지나고 '10.27법난'이라는 1700년 한국불교 역사상 최악의 법난이 벌어진다. 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의 수장이 민중항쟁의 현장인 광주에 찾아가 천도법회를 열고 시민들을 도운 것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에게는 눈엣가시로 여겨졌고, 10.27법난 발생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故정의행 법사는 "전두환 정권이 법난을 일으킨 것은 '사회정화'라는 이름 아래 자신들의 광주학살 범죄를 가리고 저항적 불교 세력을 말살하기 위해서 였다"고 지적했다. 신성민 기자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 장 박 수 관

수석부회장 양재생 정창교

제2회 부산불교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대상(상패, 상금 1,000만원)
BTN불교TV염불공양회(회장 하정선)

최우수상(상패, 상금 500만원)
김옥희(금정불교대학)

우수상(상패, 상금 300만원)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 스님)
부산개인택시 불자회(회장 이무영)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정분남)

2020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임원단

■ 고 문
김재진 박원양 장복만 조효식 박정오 전광수
설동근 이윤희 이영숙 김수현 하정선 정분옥

■ 자문위원
김진수 정홍섭 이장호 박흥대 전호환 박순곤
박태학 김영섭 고영립 박한일 박무성

■ 부회장
국제교류부회장 최금식 사찰문화부회장 최삼섭
섭외부회장 최영호 홍보부회장 이경신
대외협력부회장 이수태 법률부회장 박명진
사회공헌부회장 박형연 재무부회장 김원용
사회교육부회장 정종원 정치교류부회장 신상해
친목부회장 배상진 총무부회장 박종문
행정교육부회장 최대경 경조부회장 신기열
기획부회장 이희태

■ 부회장
윤종경 박효섭 박영근 박수곤 김종한 이종우 최순환 유영남 강경희
노종헌 장호익 김정화 김상훈 김영도 공정근 최상곤 손정원 류길자

■ 집행부
사무총장 장병주 기획이사 김기호 김민성 노현주
경조이사 오세룡 교육이사 이륭우 김윤희
국제교류이사 이윤희 문화이사 이영숙 김민성
법률이사 성원석 홍재석 사찰협력이사 강갑균 박근배
사회공헌이사 정진우 강미영 섭외이사 이만수 정임숙
의전이사 박태원 정연식 재무이사 이근욱
총무이사 배도정 이현수 친목이사 문종헌 김상규
홍보이사 손정현 정지원 집전 류상영

■ 이 사
강근순 강길주 권혁란
김선일 김성익 김영자
류강렬 박수진 백정진선
성재곤 심인택 안천일
유진상 이동진 이명학
정분남 정순천 하승준
허 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71 정산빌딩 9층 Tel 051)808-8600